

뉴스속뉴스

'자비의 선물' 나누기

거리에는 벌써 연말 분위기를 내는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선물을 보따리를 들고 흥흥히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상에는 행복만이 가득한 것 같다.

하지만 연말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청소년들이 가장이나, 밤 한 끼 해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불우 청소년들에게는 물질적으로는 물론 마음으로도 유난히 추운 계절이다.

이런 때에 뜻있는 불자들이 주위의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 '자비의 선물'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우리는선우, 대불림, 중앙산도회 등 불교신앙단체들은 28일까지 '자비의 선물' 나누기 행사를 벌이기로 한 것.

이번 행사는 신행단체들이 불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물품 봉투를 나누어 주고, 각 개인이 후원물품을 담은 봉투를 조계종 복지재단으로 보내면, 복지재단이 결식아동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복, 학용품, 음식물, 전자제품, 팬시제품, 문화상품권까지 결식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비의 선물'이 될 수 있다.

97년 외환위기를 당하고 5년이 지난 지금 모든 여건이 나아졌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때, 자지만 정성이 담긴 후원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행사들은 늘 연말 반박 이벤트로 마련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곤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자들이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는 보시바라미 실천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동참문의: 02)723-5101(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유신(취재2부 기자)

“북한산·천성산·금정산 관통도로 전면 백지화, 대안노선 추진 검토”

한나라당·민주당 대선후보 불교관련 공약 발표

불교계 최대 현안인 북한산 관통도로 및 부산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노선이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4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북한산 관통도로 및 부산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 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전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 불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재 의원은 "백지화는 기존 노선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기존 노선 대신 대안노선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도 5일 당 차원의 공식 논의를 통해 북한산 및 천성산·금정산 관통도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6일에는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와 하순봉, 김기배 의원이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하고 대안노선을 강구하겠다는 당 방침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불교특별대책위는 "노선조사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전면 재검토를 당의 공약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불교계와 시공사 및 건설교통부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북한산 및 천성산·금정산 도로 건설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조계종 공동대책위, 불교환경연대, 북한산국립공원 수탁인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반대 시민공동대책위는 민주당의 백지화 공약과 관련해 5일 환영의 뜻을 표하는 논평을 내고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에 따른 수락산 불암산 터널 공사의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불교환경연대와 경부고속철도 시민공동대책위는 "논평 차원일 뿐 정식 공약으로

총무원 이전 등 32개 사업에 64억

태고종 예산 확정, 종회부의장 대은스님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은죽이는 2일 서울 봉선사에서 제36회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총무원 청사 이전을 비롯해 32개 종책 사업과 2003년도 예산 64억5천6백만원 을 심의, 확정했다. 중앙총회에서는 또 공식 중이던 종회 부의장에 대한인헌 용원사, 총무원 재정담당 부원장에 해공대구 관음사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종단 위상 재정립을 위한 구심도량으로 새로운 총무원사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현재 총무원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신촌 봉선사 등 서울 지역 2-3개 사찰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

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고종은 재정자립이 내년도 사업 집행에 관건이 되는 만큼 국민복지카드와 보험 보급 사업, 분담금 납부제도 재조정 등 종단 재정확보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태고종 총회는 이밖에 △종단 제도 개혁 및 발전계획 수립 △종무원정 전산화 작업 △선암사 장경각 경관 정대불사 △장례문화 선도 및 장묘(납골)사업 추진 △인권위원회 설립 △1사찰 1복지 활동 전개 △동방불교대학 대학원대학교 설립 추진 등의 내년도 사업을 확정했다.

김철우 기자

북사찰 30곳 4년간 단청지원

평불협·조불련 합의 내년 3월 평양 법운암부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화장법타, 평불협)가 북한 사찰 30여 곳에 단청을 지원하기로 조선 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 이하 조불련)과 합의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조불련의 초청으로 방북한 평불협은 5일 '박태화 위원장 심상진 서기장 등과 만나 북한이 지원 요청한 59개의 사찰 중 4년간 30개 사찰에 단청을 지원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30개 사찰 단청 지원에 앞서 평양 용암산 법운암에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단청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운암 단청 지원은 내년 3월 단청문화재기술사 김성룡 씨를 비롯 5명이 방북해 재료전달 및 기술전수 방식으로 이뤄지며, 입재식과 회향식 때 남북 불교계 인사가 방북할 예정이다. 또 단청 지원시 문양은 기존의 것을 기본으로 하되 금단청을 하고, 법운사와 성불사 개금불사도 함께 할 계획이다.

평불협은 불사 추진을 위해 '북한불교종교회(가칭)'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 및 정부의 통일기금을 지원 받을 방침이다.

법운암은 "이번 합의사항은 10일 열리는 평불협 이사회를 거쳐 조불련측에 공식문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59개 사찰 중 나머지 사찰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본은 "민주본 기본원칙이 단청불사 추진인 만큼 두 단체가 함께 불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효순·미선의 극락왕생 기원” 조계사는 4일 대웅전에서 미군 징검대에 희생된 두 여생을 위한 천도재를 개최하고, SOFA개정을 촉구했다. 불자들은 조계사 대웅전에 설치된 신효순, 심미선 양의 영정이 놓인 영단앞에 헌향·헌화하며, 두 소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관련기사4면> 사진=김두식 기자

인도인 3천3백명 개종식

인도불교청년회 주도, 법륜스님 참석 예정

인도 LP주 이타와와 락나우에서 14일과 17일 각각 3000명과 300명이 참석하는 개종식이 열린다.

프라가나다 스님이 수계를 하는 이번 개종식은 지난 10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규모 개종식이 주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자 각 지역별 소규모 개종식으로 전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행사는 YBS(Youth Buddhist Society, 인도불교청년회)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법륜 스님(정보회 지도법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YBS는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인도불교 돕기 명목으로 지원한 3곳 LP주 마하야아 아카데미, 메인뿌리 나 비간지, 칸노즈 바레푸르) 모두 법당 및 교육시설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신행수기 접수마감 임박했습니다 제8회 공모

12월 17일까지 ... "각 부문 시상 푸짐"

불교계의 정령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개월을 맞습니다. 가슴에 달아두어 온 깊은 신앙체험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앙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교일을 하며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3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동구로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opia.com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현사 사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회장상
 - 현대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물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종각의 自尊心

천년동인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의 자존심을 지켜온 종각. 그 자존심을 '종각 우정에쉐르'가 이어갑니다.

종각 우정에쉐르

종각역에서 도보로 1분거리, 조계사 옆

- 교통 | 1호선 종각역 도보로 1분, 광화문 사거리, 안국로 인접
- 경제 | 국세청, 40여개의 대사관, 500여개의 외국기업 밀집
- 환경 | 조계사주변 공원화, 우정공원으로 둘러쌓인 쾌적환경
- 실제 | 타워형 설계로 양면 채광 및 조광권 극대화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2003년 11월 빠른 입주 (현재 골조공사 진행중)
고품격 마감재와 차별화된 인테리어

신착순 분양중!
분양문의: 02)736-9898

우정건설(주) | 제일은행 | 삼성신전(주)